



교향악단·관악단 정원 증원 요청 ‘한목소리’

도립예술단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서귀포예술단 의견 제출
교향악단 “80명까지 늘려달라”
서귀포관악단 “정원 60명으로”
도 “증원은 추후과제 다룰 것”

5개 제주도립예술단 중에서 음악 분야 예술단들의 정원 증원 요청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지난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제주예술단(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을 관리하는 제주시는 제주교향악단 정원을 현행 70명에서 10명 늘린 80명으로 증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동안 정원 증원을 제주도에 꾸준히 요청해온 제주시는 “광역 시도를 제외하더라도 목포·원주·포항시립교향악단이 80명 정원으로 운영되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제주교향악단처럼 서귀포관악단도 정원 증원이 필요하며 제주도에 6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 있고 청주시립교향악단은 정원이 100명에 달한다”며 “80명 정원이 되면 3관 편성으로 더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소화할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서귀포예술단(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은 서귀포관악단 정원을 6명 더 늘려달라는 의견을 담았다. 서귀포관악단 정원은 54명인데 증원

시 60명이 된다. 서귀포관악단 측은 “관악단 공연 프로그램에 필요한 단원에 비해 연주자가 부족한 현실로 매년 외부 객원 단원을 보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이들은 “정원 증원은 재능있는 젊은 인재들을 발굴해 제주도민들에게 선보이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귀포합창단은 편곡 담당을 없애는 대신 상임단원 1명을 배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서귀포예술단 측은 “매 연주 시 필요에 따라 편곡을 의뢰하는 일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도립예술단 실무협의회에 서귀포예술단에만 남아있는 단무장 참여도 명문화해달라고 했다. 도립예술단 운영과 발전 계획 수립, 기획·합동공연 레퍼토리 개발 등을 담당할 실무협의회는 안무자, 지휘자, 사무장, 노조 대표, 단원 대표, 예술단 관련 행정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서귀포관악단·합창단 단무장들도 존치되는 한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대해 제주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정원 증원 건은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검토하기 어렵고 다음 과제로 넘길 예정”이라면서 “개정안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접수된 의견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박물관 문은 열었지만… 관람객 80% 줄어

정상 운영 민속자연사박물관
코로나 ‘심각’ 후 하루 267명
“문화시설 모두 닫을 순 없어”

한해 40만명 가까이 찾는 제주 대표 문화시설인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일일 관람객이 평소의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한 이후 첫 개방일인 25일 방문객 집계지다.

26일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따르면 2019년도 총 관람객 수는 39만 843명에 이른다. 일일 평균 1281명이 방문했다. 하지만 울머서는 25일 현재까지 관람객이 총 2만844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인 2월엔 더 급감했다. 2월 1~25일 방문객 수는 5659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만8607명의 20% 수준이다. 지난 25일의 경우도 관람객 수가 267명으로 지난해 일일 평균 보다 80% 가량 줄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심각 단계 격상 이후에도 종전대로 개방하고 있는 제주지역 문화기반시설 중 하나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국립제주박물관은 관련 방침에 따라 25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상태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현재 관람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발열 여부를 확인한 후 실내 전시실로 입장시키고 있다. 전시장 방역작업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박물관 관계자는 “관광지 특성 상 도내 모든 문화 시설을 닫을 수는 없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입구에 관람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다는 판단 아래 제주도와 협의해 정상 운영을 결정했다”며 “다만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소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26일 기준 문을 연 국립박물관이나 유적지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비롯 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감귤박물관, 제주목관아 등이다.

전선희기자

천주교 제주교구 “오늘부터 미사 중단”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
불교계 법회·순례 등 취소
개신교 영상 예배 등 대책

천주교제주교구(교구장 강우일 주교)가 이달 27일부터 10일 동안 미

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제주교구는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교구 지침’을 통해 “제주교구 내 모든 분당과 기관의 성당은 2월 27일부터 3월 7일 저녁 미사 전까지 10일 동안 신자들과 함께 하는 미사를 중지하고 화합이나 행사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정부가 지난 23일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장례 미사는 가족과 위령회원들만 참석해 거행된다. 장례 기간 중에는 조문객을 받거나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혼인 미사도 양가 가족을 중심으로 최소화해 진행하도록 했다.

불교계 상황도 다르지 않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본사인 제주 관음사가 지난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찰 출입을 통제하는 등 예방 조치에 나서고 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긴급 지침을 마련해 모든 법회, 성지순례, 교육 등을 취소하라고 공지했다. 도내 개신교계도 제주성안교회가 영상예배를 시행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선희기자

詩(시)로 읽는 4·3 (48)

달력

정일근

복제주군 찬 바람벽에 예수처럼 못 박힌 달력, 제주 이모 달력에는 4월이 없다

3월이 가면 4월이 오는데 4월이 가면 5월이 오는데 이모, 제주 이모의 달력에는 4월이 없다 3월과 5월 사이 4월이 없는 달력뿐이다

만화방창 4월에 달아 꽃구경 한 번 못하고 뺏속까지 잔뜩 움츠렸다 3월에서 5월로 길게 훌쩍 건너가서는 뒤돌아보지도 않는 이모

예순 해 동안 4월이 없는 제주 이모의 달력

제주4·3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한다. 이념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구잡이로 죽여 버리는, 완전히 미쳐버린 세상. 총살은 기본으로, 비협조적인 사람이나 경찰과 군인의 가족들은 본보기로 참수형에 처했다. 연좌제를 적용한다며 친인척이나 면적이 있는 사람들을 공개처형했다.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욕지 출신 군경이 직접 죽이지 않고 제주 사람으로 구성된 민보단을 이용해 사람들을 한라산에 몰아 죽장으로 찢러 죽였다. 살기 위해 한라산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사냥’했고, 이들이 추위에 못 버티 귀순하자 격리 수용하다가 한국전쟁의 발발로 이들을 학살하는 일도 있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을 모아두고 돌팔매질을 하게 만지기도 했고, 심지어 비학동산에서는 임산부를 나체로 땡나무에 매달아 창으로 찢러 죽였다. 이들의 잔인함에 대한 증언 중에는 당시 패허가 된 마을에서는 땅을 조금만 파도 시체가 마치 젓갈(멸치젓, 제주

말로 ‘멜젓’) 담근 것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는 증언. ‘민간인’을 과녁으로 쓰는 서정이나 군대의 ‘사격장’이었던 제주섬. 심지어 일본군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영아살해’마저 있었다. 이를 수습하고 진압하려 한 14연대는, 자신들이 개입하기 전까지 살아남은 제주도의 거주자 대부분이 직간접적인 가해자라는 상황 속에 수습할 타이밍을 놓쳐, 보복성의 성격을 가진 여수사건으로 이어진다.

모든 학살은 1940년대, 1950년대의 섬에서 벌어졌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배가 몇 척 없을 정도로, 제주도는 거의 단절된 섬이었다. 그 시대에 섬에서 사는 사람들은 몇 사람만 거처면 사촌 아래 혈족일 수준으로 외부 사람의 유입이 적을 텐데, 그곳에서 연좌제를 적용하여 잔인한 학살을 하였다. 그 학살의 시발점인 4·3사건. 그래서 제주 이모의 달력에는 4월을 영원히 지워야 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문화창작품 마케팅 지원

청소년참여위원 모집

제주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문화창작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작자와 제주도내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콘텐츠 산업화 기반 확대를 취지로 이루어진다. 공모 분야는 개별 홍보마케팅, 자율형 국내 시연행사, 자율형 해외시연행사 지원으로 나뉜다. 모집 기간은 3월 18일까지. 문의 064)735-0622.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가 다음달 15일까지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제주도내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지원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 064)751-5041.



확장이전

직영 A/S체제로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대륙종합농기계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 대륙기계 제주총판
(주) 두산테크 제주총판
(주) FELCO가위 제주총판
(주) 미듬 제주총판

히트상품
이중칼날구조



14TRC-HS (16마력)

감굴 전정목 파쇄와 제주지형에 강한 맞춤형 파쇄기!!





강력한 힘! 손쉬운 운전!!

휴대용 전동가위

스위스 전통의 정밀기계와 컴퓨터 기술을 융합한 충전식 배터리 전동가위로써 우수한 절단 능력과 최상의 편리성 실현




1회 충전 5일 이상 사용

운전 조작이 너무 쉽다



MX-E350 (전동형)





MX-500DL (레도형 덩크+리프트)

MX-500 (레도형 수동)

MX-300 (엔진형)

전기종 본체를 열지 않고도 가위날 교체 가능

전기(종 정부지원(보조금) 농협용자 대상기종)



FELCO 820
최대 절단경 45mm

대륙종합농기계
(위미 입구 삼거리 남원 방향 300m)

판매/A/S문의
064) 767-3430